대표 반려동물 축제 '임실N펫스타'

5월 1~3일 오수의견관광지서 개최… 올해 'FCI 국제 어질리티 대회' 첫 개최 주목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수의견관광지에서 열리는 '2026 임실N펫스타'에서 국제대회급인 FCI(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2일과 3일에 열리는 FCI(세계애견연맹) 어질리티 대회는 올해 펫스타 축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한국애견연맹(KKF)과 협력해 추진된다.

2일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아마추어 대회를 시작으로, 3일에는 인터내셔널 평가전과 대회가 이어지며 전문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갖춘 수준높은 경기가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 장애물을 통과하며 속도와 정확성을 겨루는 종목으로 축제에 역동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26 임실N펫스타'는 반려동물 스포츠부터 전문경연 대회, 참여형 체험까지 한층 강화된 핵심 프로그램이 총집결한다.

군은 제41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기존 인기 콘텐츠는 물론,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축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 반려산업 인재를 발굴하는 전문 경연도 마련된다. 2일에는 반려누리에서 '한국 반려동물 위그펫 미용대회'가 열린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오수 마스터즈 데이' 역시 눈길을 끈다.

국가대표 어질리티 선수들의 시범훈련을 직접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형 미니대회와 펫티켓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축제의 대표콘텐츠인 '전국 반려동물 패션쇼'는 감성 보컬 그룹 V.O.S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런웨이가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국가대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쇼도 3일간 이어진다. '반려동물 토크쇼'를 통해 이웅종 교수, 설채현 수의사, 강형욱 훈련사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반려문화, 행동교정,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며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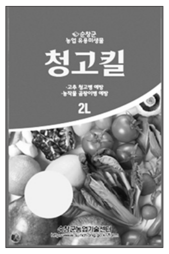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반려동물 올림픽'에서는 달리기, 줄다리기, OX 퀴즈 등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다양한 종목이 진행되며, '댕댕학당'에서는 아로마테라피와 화식사료 만들기 등 건강한 반려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가 전수된다.

특히, 지난해 총 30마리의 유기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준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해, 입양을 희망하는 방문객과 보호소간 연계를 지원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단위 방문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5월 2일에는 반려동물 동반객 200팀이 참여하는 '댕댕트레인'이 서울역을 출발해 임실역까지 운행되며, 축제의 접근성과 흥행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추 청고병 해결사 '청고킬' 공급

순창군, 자체 개발 미생물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순창군이 고추 재배 농가의 주요 애로사항인 청고병(시들음병) 예방과 관리를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미생물제 '청고킬'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고킬'은 버크홀데리아균(Burkholderia territorii)을 기반으로 개발된 농업 유용 미생물로, 토양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 활성화를 촉진해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고추 뿌리의 활력을 높이고 생육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청고킬'을 2리터당 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토양 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실용적인 자재로 자리매김했다.

청고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토양 전염병이다. 발병 시 작물이 급격히 시들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농가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연작지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순창군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해 '청고킬'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 농가들로부터 생육 안정과 토양 환경 개선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양돈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 본격 추진

27일부터 임실군이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돈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양돈농가 축사 내 분뇨 부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축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공급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의 추천을 받아 임실군에서 일괄적으로 조달 구매 후, 관내 축산 농가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되는 악취저감제는 미생물제제 및 유용 미생물(EM) 등으로 구성되어 분뇨 내 악취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효능이 입증된 제품들이다. 임실군은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양돈농가 37개소에 저감제 35톤을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특별장학금 수여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지난 24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1명과 예체능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2명에게 '으뜸인재' 특별장학금과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으뜸인재 특별장학금은 으뜸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2025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이수한 뒤 주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지원된다. 2026학년도 수능의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1명이 메디컬 분야(한의대)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어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은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기 위해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이번에는 체육 분야 2명(검도, 골프)이 선정되어 각각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완료

만 60세 이상 2000명 대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만 60세 이상 남원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혈액검사는 단 한 번의 채혈로 혈액 속 '베타-아밀로이드 농도'를 측정하여 10~15년 후 발병할 수 있는 치매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검사로, 남원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도입해 현재까지 총 11,080명을 검사했으며, 이 중 치매 위험도가 높은 1,240명을 조기에 발견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군으로 확인된 시민에게는 2년마다 인지선별검사를 안내하는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시민에게는 신경과 전문의 진료 및 상담을 연계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시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교육앱인 '기억하리'를 활용한 인지훈련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여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선진적인 치매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든 시민이 치매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공모 선정

'월매스테이' 조성 추진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3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남원형 숙박시설인 '월매스테이'를 조성, 특히 '월매스테이'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협업 모델로 구축해 은퇴자, 자립 준비청년, 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전망이다.

또한 월매스테이를 거점으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외지 방문객에게 소개하는 '팬슈머(Fansumer)' 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제조 과정에 참여하거나 브랜드 성장을 지원하는 팬슈머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수도권 중장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감마켓'을 운영, 상품구매와 SNS 홍보를 이끌어내며 생활인구 증대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혁신모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국내 대표 귀농·귀촌 박람회인 'Y-FARM EXPO 2026'에서 우수 홍보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Y-FARM EXPO 2026 귀농·귀촌 상담 모습.

귀농·귀촌 지원 정책 우수성 입증

순창군, 'Y-FARM EXPO'서 우수 홍보관상 수상

순창군이 국내 대표 귀농·귀촌 박람회인 'Y-FARM EXPO 2026'에서 우수 홍보관상을 수상하며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우수성과 현장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연합뉴스와 농협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귀농·귀촌 유치 전략과 농정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이사 정착비 지원 △귀농인 소득 기반 지원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정착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단순한 정책 안내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 개별 상황에 맞춘 1대1 상담과 현장 중심 설명을 강화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정착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농지 및 주택 매물 정보, 지역 생활 여건, 영농 초기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청년 귀농 성공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착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특히 군이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장 상담 열기도 한층 뜨거웠다.

그 결과 행사 기간 동안 총 162명의 방문객이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며, 이 중 21명은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착 계획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